



3·1절 강진 투어...봄으로 질주 23일 강진에서 열린 제63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 첫째 날 남자 개인 장거리경기에서 고등부와 일반부 선수들이 봄볕이 완연한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다. <강진군청 제공>

# 마운드에 '봄'...방망이는 아직 '겨울잠'



지크

첫 등판 지크 2이닝 무실점·김윤동 3이닝 퍼펙트

타격은 3경기 2득점...요미우리에 1-2 역전패 당해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마운드 맑음, 타격 흐림이다. KIA 타이거즈가 23일 오키나와 나하 셀룰러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연습경기에서 1-2 역전패를 기록, 3연패에 빠졌다. 연패 상황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마운드가 아니라 이번에는 타격이 고인스럽다. 김기태 감독은 경기장 끝난 후 이날 선발이었던 지크에 대해 "컨트롤도 좋았고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잘 던졌다. 첫 등판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호평했지만 "김주찬과 김주형의 안타 두 개밖에 나오지 않았지 않겠나. 타자들이 스스로 느꼈을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공격에 대한 아쉬움을 보였다. 지난 18일 라쿠텐전 4-0 승리로 11연패에서 탈출했던 KIA는 삼성전 1-7패, 히로시마전 0-7패로 다시 연패모드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날 7회까지 진행된 요미우리와의 연습경기에서 1-0으로 앞선 7회초 2실점을 하면서 1-2 역전패를 기록했다. 마무리 후보 심동섭이 대타 아베에게 좌중간을 가르리는 2루타를 허용한 뒤 3개의 안타를 더 내줬다. 심동섭의 불륜세이브가 눈에 띄지만 이렇다할 공격을 펼치지 못한 게 더 아쉬웠다. 3회 1사에서 불넷으로 출루한 김호영이 김주찬의 우중간 2루타 때 홈에 들어온 게 이날 득점의 전부. 이후 4이닝 동안 1루 베이스를 밟은 선수는 불넷을 끌라낸 윤정우가 유일했다. 3연패 기간 홈에 들어온 주자는 단 2명. 안타도 11개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9경기 103실점을 기록했던 마운드는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심동섭이 불륜세이브를 남겼지만 첫 실전에 나선 지크가 2이닝 3피안타 1볼넷 1삼삼진 무실점의 피칭으로 스타트를 끊었다. 1회 1사에서 연속 안타를 허용한 지크는 4번 타자 카테토에게 위력적인 슬라이더를 던지며 첫 탈삼진을 기록한 뒤, 3루수 앞 땅볼로 실점 없이 1회를 넘겼다. 2회에

글러브를 맞고 흐르는 내야안타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불넷을 하나 허용했지만 병살타와 직선타로 실점을 하지는 않았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9km, 147km의 투심도 보여줬다. 또 커브(127km) 슬라이더(137km) 체인지업(138km)을 고루 시험하면서 첫 등판을 소화했다. 지크는 "프리미어 12 대회 이후 실전은 처음이다. 변화구 점검에 중점을 뒀고, 상황에 맞게 던질 수 있는지 점검차원에서 섞어서 던졌다"며 "재구가 원하는 대로 잘 돼서 만족스럽다. 준비 잘했고, 팀에서 위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줘서 컨디션이 좋다. 그래서 스피드도 잘 나온 것 같다"고 첫 등판 소감을 밝혔다. 또 "대표팀 경기 이후 동양 타자들을 두 번째 상대해봤는데 레그워크를 많이 하는 타격폼과 컨택 위주의 타격이 다르다. 하지만 경기 운영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하겠다"며 "내승을 떠나서 내가 등판하는 경기에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팀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지크에 이어 두 번째로 등판한 김윤동은 3이닝 퍼펙트 피칭으로 연습경기 호투를 이어갔다. /오키나와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23일 KIA와 요미우리의 연습경기가 열린 오키나와 나하 셀룰러 스타디움. 밖에서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대형 TV를 설치했다.

## 요미우리 연습구장도 특급

오전 내내 비 셀룰러 스타디움...오후 경기 거둔 실내 불펜·경기장 밖 TV 설치·기념품 부스도

야구 강국, 야구 명문 구단의 모습을 보여준 요미우리 자이언츠였다. KIA 타이거즈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연습경기가 열린 23일, 이날 오전 일본 오키나와에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다. 연습경기 당일 오전 1시에서 2시로 한 시간 미루기로 이 후 약속을 해둔 상황. 그러나 오전 내내 비가 이어지면서 연습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실내연습장에서 몸을 풀 KIA 선수들도 "연습경기를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미리 방수포로 셀룰러 스타디움의 그라운드를 덮어두었던 요미우리는 경기를 앞두고 노련한 직원들을 투입해 경기장 정비 작업을 진행하며 연습경기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요미우리의 특급 기대주인 신시 코정스태프가 기대했던 박동민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신에 집중함을 키우는 작업은 잠시 보류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을 위해 기념품 판매 부스를 마련한 것은 물론 팬들이 경기장 밖에서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대형 TV를 설치하는 등 인기 구단의 면모를 과시했다. 요미우리가 스프링캠프 연습구장으로 사용하는 셀룰러 스타디움도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선수들의 입에서는 "목동 구장보다 더 좋은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 인력들이 대거 투입되어 관리하는 그라운드 상태도 좋고, 내부 시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실내 불펜(사진 아래)에도 경기장을 지켜볼 수 있는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어, 경기 전 KIA 선수들은 중계 화면을 통해 요미우리 선수들이 몸을 푸는 모습을 지켜봤다. 요미우리와의 경기는 KIA 선수들에게 수준 높은 시설과 선수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경기 라인업이 나오자 선수들은 "아베가 지금 날씨에도 걸음을 한 팬들은 덕분에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다. 요미우리 측은 경기장을 찾은 팬들

## 부상 경계령

최용구 이어 박진두·박동민 등 중도 귀국

완주를 하지 못했다. 박진두는 연습경기 도중 파울볼을 맞은 오른쪽 다리 부근에 염증이 생기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잘 달려왔던 정용운도 고질적인 허리 통증이 문제가 됐고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의 현재 상태와 관련해 "다른 투수들에 비해 2주 정도 뒤쳐져 있다"면서 "우리는 그가 무리해서 던지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는 알렉스 우드나 마이크 불싱어 등 선발 투수들이 충분히 있다"면서 "류현진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복귀해서 재능을 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류현진 "어깨 통증 전혀 없다"

수술 후 두번째 피칭서 공 30개 던져

을 느꼈다"고 환하게 웃었다. 리 허니컷 투수코치도 "매일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것을 느꼈는데, 오늘은 더 좋았다"면서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데이브 로버츠 신임 감독은 류현진이 재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소화하고 있지만, 시즌 첫 등판은 어려울 것이라

로버츠 감독은 이어 "어깨수술을 받고 복귀한 류현진에게 200이닝을 소화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저스는 스프링캠프 기간 열리는 시범경기인 에리조나 '캐터스리그(Cactus League)'에도 등판해 기량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류현진은 전날 한국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서두르지 않고 프로그램에 맞춰 시즌을 대비하겠다"면서 "웨이트 트레이닝과 어깨 보강, 어깨 마사지 등 재활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키나와 캠프에 부상 경계령이 떨어졌다.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가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중도 귀국자가 한번에 발생했다. 앞서 내야수 최용규가 어깨가 좋지 않아서 집을 썼고, 23일에는 '캠프의 기대주' 내야수 박진두, 좌완 정용운, 사이드암 박동민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체력적인 부담이 많은 시기, 세 선수 모두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하면서 캠프

왼쪽 어깨를 수술하고 재활 중인 미 프 로야구(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투수 류현진(29)이 22일(현지시간) 수술 후 두 번째 불펜피칭에 나섰다. MLB닷컴에 따르면 류현진은 에리조나 주 글렌데일의 캐멀백 랜치에 설치된 스프링캠프에서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불펜피칭에 나서 30개 공을 성공적으로 던졌다. 류현진은 이날 불펜피칭이 끝난 뒤에도 팔에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MLB닷컴은 전했다. 류현진은 불펜피칭을 마치고 "오늘 매우 좋았다"면서 "상태가 매우 좋다는 것

